논어 7편 술이 28장 · 쓰기 연습

互鄕難與言。童子見，門人惑。子曰：「與其進也，不與其退也。唯何甚？人潔己以進，與其潔也，不保其往也！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互鄕難與言童子見門人惑子

曰與其進也不與其退也唯何

甚人潔己以進與其潔也不保

其往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